도-시군-전주대·호원대 글로컬대학 업무협약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국회의원-도-시군-대학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 도내 국회의원 6명, 박진배 전주대 총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응 간담회를 열고, 뒤이어 14개 시군과 지역대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상호발전을 위한 도-시군-전주대·호원대 글로컬대학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학·과학중점학교 운영

전북교육청, 2026학년도 중점학교 운영계획 수립

도내 학교 대상 공모 추진… 23일까지 신청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수학중점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계획을 수립,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수학중점학교는 △수학교과중점학교 △수학활동중점학교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수학교과중점학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중심의 탐구 수업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수학 학습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운영 기간은 3년이며, 선정 학교에는 5,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수학활동중점학교는 학생 활동 중심 탐구 수업 및 특색 있는 수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공모하며, 운영 기간은 1년이다. 교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과학중점학교 역시 과학교과중점학교와 과학활동중점학교로 운영된다.

과학교과중점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화된 과학·수학 교과 교육과정과 심화 탐구활동을 중점 운영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 희망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과학활동중점학교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 체험활동과 탐구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뒀다.

학교 및 인근 학교, 지역 학생,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과학수업, 탐구활동, 미래기술 기반 체험 행사, 동아리, 방과후 활동 등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규모와 계획서 내용에 따라 과학교과중점학교는 교당 6,000만원 내외, 과학활동중점학교는 교당 3,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수학중점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3일까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모사업시스템(www.jbe.go.kr/gongmo)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수학·과학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개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학력 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관심있는 학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과학·기술 등을 하나로 융합교육 선도학교 운영

전북교육청, 초등 5곳 등 총 17곳서 운영 중

내년에는 18개교 선정… 23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를 운영중이다.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융합교육(STEAM)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지역 중심 학교로서 인근 학교로의 융합교육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공모를 통해 초 5개교, 중 5개교, 고 7개교 등 총 17개교에서 융합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STEAM 클럽 동아리 운영 △교육과정 내 융합교육 운영 △타 학교 및 본교 교사를 위한 수업 나눔 실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핵심 이행 사항으로 추진한다.

실제, 2024년 융합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한 전주근영여고의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9종을 개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내년에는 18개교(초 6개교, 중 6개교, 고 6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교당 7,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융합교육 선도학교를 희망하는 오는 23일까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모사업시스템(www.jbe.go.kr/gongm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실제적인 융합교육 모델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미래 사회를 주도할 역량 있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가 지난 10일 본교에서 2025년 제3차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교원양성 정책·교육 현안 공동대응

전주교대, 제3차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정기회의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가 지난 10일 본교에서 2025년 제3차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장협의회는 전국 국립교육대학 10개교와 한국교원대학교, 제주대학교로 구성된 교원양성대학교 협의체로, 전주교육대학교가 회장교를 맡아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이번 제3차 정기회의에서는 △교원양성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정체성과 방향성을 점검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공동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박병춘 총장협의회장은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가 교원양성기관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미래 교육을 향한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고등교육 발전에 힘쓰고 지속 가능한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 부동산 규제정책 분석 연구논문 '주목'

전북대 지근수 석사과정생 지역개발학회 우수논문상

전북대학교 지근수 석사과정생(공대 도시공학과, 지도교수 황지욱)이 최근 열린 '2025년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지 석사과정생은 '전주권 부동산 규제로 인한 주택시장 영향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전주시에 적용된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역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논문에서는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해 규제 적용 지역인 전주시를 처리군으로, 인접 도시를 통제군으로 설정한 후 정책의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규제 이후 전주시의 주택가격이 유의미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규제정책이 비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학술대회 심사위원들은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정책의 효과를 검증한 국내 최초의 실증연구"라며 "학문적 시사점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지근수 석사과정생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황지욱 지도교수는 "지근수 학생의 연구는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한 선도적 사례로, 향후 비수도권 부동산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제주 학교운영위원장들, '함께 성장' 계기 마련

전북학운협, 제주서 정책연수

제주학운협과 협약도 체결

전북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11~13일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책연수를 실시한 가운데, 제주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윤미연)는 지난 11~13일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책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간 교류를 통한 교육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전북학운협 지역 회장과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 진행된 제주교육청과의 간담회에는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교환했다.

이어 제주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협의회는 △공동 연수 및 교류 행사 주최 △상호 방문을 통한 교육 현장 이해 제고 △협약 성과 홍보 및 네트워크 확장 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둘째 날에는 제주 해봄 Wee센터를 방문해 정서·심리 지원 기반 교육의 실제 사례를 살펴봤다.

해봄 Wee센터는 제주교육청 산하의 종합상담지원기관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입원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다.

윤미연 회장은 "이번 정책연수는 지역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협의회, 소통하는 협의회로서 전북 교육의 주체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제주 캠퍼트 호텔앤리조트에서 '2025 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학협력, 전문대 지속가능 경쟁력 결정짓는 핵심"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2025 하계세미나 개최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회장 조덕현,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장)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제주 캠퍼트 호텔앤리조트에서 '2025 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덕현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학협력이야말로 전문대학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협력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성규 제주관광대학교 총장이 축사를 통해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강화와 지역 연계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영도 회장은 "전문대학의 산학협력이 국가 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과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

세미나의 핵심 세션에서는 김헌영 중앙RISE 위원장이 '중앙RISE 추진 기조 및 2025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혁신은 대학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고윤성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장은 '제주 RISE 현황 및 런케이션'을 주제로 지역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시대 산업구조 변화와 교육의 대응'을 주제로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과 산업 구조의 급변 속에서 전문대학이 주목해야 할 핵심 트랜드(Trend)를 심층 분석해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우리의 소통 타임, 차담회' 전주교육지원청서 개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11일 대회의실에서 '우리의 소통 타임, 차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차담회는 지난 5월 실시한「소통-협력-청렴의 시작 소·중·한 워크숍」결과, 상호존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행 주제로 업무별 실무자 정기 간담회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1차 차담회로 전주교육지원청 교육국 소속 장학사 및 주무관들이 함께 모여△상호 직원 칭찬하기 △ 과별 업무추진시 겪는 고충사항 나누기 △과별 업무 공유 △협력을 통한 업무 개선방향 논의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행정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를 다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 담당자 연수

2025 회계연도 결산 정확성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11일 순창 쉴랜드에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연수는 결산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공유·환류함으로써 다음연도 결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결산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절차 △결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공유 및 환류 △AI를 활용한 결산 데이터 분석 기법 실습 등이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결산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뿐 아니라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산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정보 교류 기회를 마련해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하계 교직원 연수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 9~10일 2025학년도 하계 교직원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자 중심 소통 전략 △융복합 교육과정 실천 △AI 기반 교수법 활용 등 교육혁신을 중심으로 구성, 총 11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대, '미래내일 일경험 기업탐방형' 프로그램 운영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8~10일 2박 3일 일정으로 '미래내일 일경험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 실습 △전북혈액원 탐방을 통한 부서별 직무 체험 △기관 인사담당자와의 직무 멘토링 등을 통해 실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의 사회적 가치와 직무 역할을 주제로 진로 특강 3회를 병행, 참가자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히고,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